

농진청,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전개

농작업 안전 수칙·응급상황 대처 요령 홍보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2024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민간기관,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 등 민관이 협력해 농촌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농업 분야 기관장·단체장이 참여하는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릴레이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재호 청장은 홍보영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벌어짐 사고

사태로 설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조 청장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남화영 소방청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을 지목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작업 편이·안전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안전재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합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전교육을 전국 농촌진흥기관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 책자, 교육 동영상은 '농업인안전365(https://farmr.rda.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업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영농시기별 농작업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 라는 표어 아래 2024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한다.

365(https://farmr.rda.go.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농업안전팀 김경란 팀장은 "영농시기별 농작업 안전 수칙과 응급상황

대처 요령 등을 널리 알려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는 제9기 KRC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을 열었다.

투명·공정한 기업문화 확산 앞장

농어촌공, 제9기 KRC 청렴옴부즈만 위촉식 개최

한국농어촌공사는 '제9기 KRC 청렴 옴부즈만' 위촉식을 하고,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확산에 나선다. KRC 청렴 옴부즈만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사 사업, 경영 전반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시민 감시관의 입장에서 심층 진단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올해는 공사의 청렴도 향상과 갑질 방지 등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책임, 감사직무, 법무 등 전문 분야별 담당분과제도를 운영하여 분야별 해당하는 전문 활동으로 전문

성을 강화하고, 윤리경영위원회, 채용 면접 등까지 KRC 청렴 옴부즈만의 활동 범위를 넓혀 운영의 내실을 더할 계획이다. 이광래 공사 상임감사는 "옴부즈만의 역할과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국민에게 공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며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위촉식에 이어 열린 2024년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2023년도 감사 결과와 및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현안 사항을 공유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욱기 기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강화 민·관 합동 기술지원 추진

전북지방환경청내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20개소 대상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은 관내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북지역 환경기초시설 2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지원은 운영 요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노후화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여, 하·폐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수처리(정화)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계획하였다. 기술지원 대상 시설은 공공하수처리

시설 15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 5개소로, 수질기준을 반복 초과(최근 3년간 4회 이상)하거나 노후화되어 운영·관리가 미흡한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전북지방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된 기술지원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현장컨설팅 형식으로 진행된다. 기술지원은 정책, 운영·관리, 기술진단 총 3개 분야로 진행되며 최근 정

책 방향과 법적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고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술지원을 통해 드러난 경미한 문제점은 해당 지자체에서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시설·장비의 전면 개량이 필요하거나 인근 시설과 통·폐합이 필요한 시설은 국고보조금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다. 송성욱 전북지방환경청 유역총량팀장은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 운영자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순창 전이수산, 순창 콩 메주로 키운 장어 미국시장 공략

순창군, 장류의 고장에서 탄생한 특별한 맛의 장어가 다시 한번 세계 시장으로 나간다.

17일 군에 따르면 순창군에서 양반 장장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이수산(대표 이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 콩으로 만든 메주를 먹여 키운 장어 25톤(한화 시가 1억원)을 부산항을 통해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이정 대표는 3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10톤 이상의 장어를 꾸준히 수출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며 4.5톤을 수출한 바 있다.

전이수산은 장류의 본고장인 순창군 서장을 담그는 기본 재료인 순창 콩으로 만든 메주를 먹인 장어로, 장어의 육질이나 식감이 뛰어나 국내외 식도락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조리 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초벌구이한 제품도 진공포장을 한 후 자체 개발한 소스를 함께 제공해 소비자들이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타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6차산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전 군산지사, 군산시와 함께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시행

한국전력공사 군산지사(지사장 구민모, 노조위원장 고동훈)는 17일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 방문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군산시와 함께 실시한 이번 나눔 행사는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군산시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배와 장판 교체 지원했고, 한국전력 군산지사에서는 임직원이 월급에서 자발적으로 모은 사회공헌활동 기금으로 약 80만 원 상당의 친환경 등유보일러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운기 나눔에 앞장섰다. 구민모 군산지사장은 "집은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자 행복한 안식처다.



한전 군산지사는 17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주위의 이웃을 돌이키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농신보 남원센터,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신용보증 교육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 보증센터(이하 농신보 남원센터, 센터장 이성로)는 지난 16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과정 중 농신보 보증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급차 교육은 후계농업경영인 50여명을 대상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농신보 우대보증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최대 시설자금 5억(운전자금 3억), 보증비율 98%, 보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료를 최대 0.1%까지 우대가 가능하다. 교육내용으로는 농신보 개요, 보증종류 및 보증한도, 보증신청 절차 등을 포함하여 보증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후계농업경영인의 실제 지원 사례를 포함하여 설명하였으며, 교육 중간에 대상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



농수산업신용보증기금 남원권역보증센터는 지난 16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2024년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과정 중 농신보 보증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성로 센터장은 "후계농업경영인은 전문적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육성하는 정책이며, 보증지원을 통해 농업과 농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